

안방준(安邦俊)의 한시 <오륜가(五倫歌)>에 구현된 오륜 형상과 그 의미

송재연*

- I. 서론
- II. 한시 <오륜가> 창작배경으로서 독행(篤行)
- III. 한시 <오륜가>에 구현된 오륜 형상과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의 역사적 격변기를 살았던 호남 사람 안방준의 도학자적 삶과 학문적 지향을 살피고, 이를 한시 <오륜가> 창작과 연관지어 작품에 구현된 오륜 형상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아울러 시조 ‘오륜가’와의 비교를 통해 오륜시가사에 있어서 한시 <오륜가>가 가지는 의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안방준은 고향에 은거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심성을 수양하는 데 진력했던 도학자로,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독서와 강학을 통해 체득한 깨달음을 몸소 실천하는 ‘독행(篤行)’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 윤리 중심의 도학관을 견지하고 있던 안방준은 세도가 무너지고 인심이 더럽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행’의 한 방편으로 한시 <오륜가>를 창작하게 된다. 그는 은봉정사에서 지내며 학문 활동에 전념하고 있던 만년기에 평소에 흠모했던 김구의 『천자문』 필적 중 160자를 본떠 총 8수로 구성된 오언절구 형식의 <오륜가>를 창작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비롯한 후학들에게 학문적 지표인 ‘독행’을 구현하기 위해 실천 윤리인 ‘오륜’을 한시 양식으로

* 서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형상화함으로써 실천을 독려했던 것이다.

한시 <오륜가>에 구현된 오륜의 항목은 부자, 군신, 장유(사제), 부부, 장유(형제), 봉우 간의 윤리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장유유서 항목의 경우 사제간의 윤리와 형제간의 윤리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장유유서를 ‘스승과 제자’, ‘형과 아우’라는 지식과 혈연 공동체의 측면에서 함양해야 할 중요한 윤리 규범으로 인식한 결과로 향촌의 사족 집단이나 자신의 가문 내에서 유대 강화나 집단 결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한시 <오륜가>는 오륜 항목 구성에 있어서 재지사족의 시조 ‘오륜가’와 동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형상화 방식에 있어서 한시 <오륜가>는 재하자(在下者)의 도리에 초점을 맞춰 당위적 명제를 제시하고, 이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실을 했던 인물의 전고를 사례로 들어 교훈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조 ‘오륜가’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산문으로 상세하게 서술된, 성리학 경전을 대신하여 ‘한시’로 오륜 각 항목별 요체를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천 윤리로서의 당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식과 소양을 갖춘 교화대상에게 익숙했던 경전의 구성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륜의 이념을 단형의 한시 형식으로 압축 제시하여 교훈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핵심어 : 안방준, 호남사림, 독행(篤行), 한시, 오륜가, 오륜, 실천 윤리

1. 서론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의 역사적 격변기를 살았던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은 출사(出仕)에 큰 뜻을 두지 않고 고향인 전라도 보성에 은거하며 저술과 강학 활동에 진력했던 도학자라고 할 수 있다. 11세 때 이황(李滉)의 문인이었던 박광전(朴光前)의 문하에서 수학한 이후 자부(姊夫)인 박종정(朴宗挺)을 좇아서 학문을 연마하였고, 16세 때부터는 과거 공부를 아예 그만둔 채 오직 위기지학(爲己之學)에만 전념하다가 파주에 살던 성혼(成渾)을 찾아가 제자가 되기를 간청하여 그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임란 당시에는 스승 박광전을 따라 의병에 가담하여 구국을 위해 힘썼는데, 이러한 참전의 경험은 절의(節義)와 충절(忠節)이라는 그의 도학적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후 39세 때 선조(先祖)의 뜻을 잇기 위해 서울 낙산(駱山) 매계동(梅溪洞)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였고, 서울 생활을 통해 이정구(李廷龜), 오윤겸(吳允謙), 윤방(尹昉), 홍준(洪遵), 김광환(金光煥) 등 서인(西人)과 교류하면서 학문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고향 생각이 간절하고 서울 살림도 쉽지 않아 3년 만에 고향 보성으로 돌아오게 된다. 원래 송산(松山)에 있는 옛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우연히 들렀던 우산(牛山)의 자연풍광에 매료되어 이곳에 거처를 정한 후 산림처사로 지내면서 자신의 도학적 신념인 절의를 구현한 『혼정록(混定錄)』, 『항의신편(抗義新編)』, 『병자창의록(丙子倡義錄)』 등의 저술 활동에 몰두하였다. 74세 때인 1646년에는 은봉정사(隱峯精舍)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힘쓰다가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¹⁾

이와 같이 도학자적 삶을 살았던 안방준에 대한 논의는 이해준²⁾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안방준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후속 연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안방준에 대한 논의는 조선 중기의 실천적 도학자로서의 삶과 학문, 그리고 그가 견지했던 ‘절의’ 사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고영진³⁾은 안방준을 가리켜 평생 향촌에서 지내며 많은 문인을 양성하는 동시에 중대한 국가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던 서인산림(西人山林)으로 규정하는 한편, 성리학의 의리명분적인 측면에서 절의를 중시하여 이를 체계화하면서 저술 작업을 진행했던 도학자적 면모를 강조하였다. 안동교⁴⁾의 논의도 안방준의 진유적(眞儒的) 삶과 사상에 대해 전반적

1) 안방준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은봉전서(隱峯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연보(年譜)>, <행상(行狀)>, <신도비명병서(神道碑銘并書)>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 이해준, 『우산 안방준의 생애와 사상』, 『금호문화』 통권37호, 금호문화재단, 1988년 7월호, 70~77면.

3) 고영진, 『17세기 전반 호남사림의 학문과 사상 - 안방준, 고부천, 정인홍을 중심으로』, 『우송 조동결전생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한국사학사연구』, 나남출판, 1997, 304~324면. 이후 고영진은 『17세기 호남사림의 학문과 사상-안방준·고부천·정인홍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단행본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혜안, 2007)』에 재수록하였다.

4) 안동교, 『은봉 안방준의 진유적 삶의 여정』, 『향토문화』 제18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8, 15~42면.

으로 검토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후 황의동⁵⁾은 안방준이 성혼의 문인으로 평생 의리의 실천과 선양에 앞장섰던 도학자로, 그의 학풍은 위기지학(爲己之學)과 의리지학(義理之學)이었다는 점을 밝혔고, 최영성⁶⁾도 안방준의 실천유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도학과 절의가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던 그의 학문관이 가지는 정신사적 의의를 규명하였다. 박미향⁷⁾ 역시 16세기 초에서 17세기 중기라는 대내외적 혼란기를 보냈던 안방준이, 당대 유학자들이 이기(理氣)나 예론(禮論)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 달리, 실천 윤리인 절의 사상을 이념의 기조로 삼아 현실에 적극 대응했던 점에 주목하였다. 정재훈⁸⁾도 여타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중기 사림의 전형적 삶을 살았던 안방준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가 중시했던 절의와 충렬을 비롯하여 경세관과 역사서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안방준의 문학 세계를 천착(穿鑿)하고자 한다. 안방준은 다양한 양식의 문학 작품을 창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구자들은 안방준의 생애나 사상적 특징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이에 대한 논의는 영성(零星)한 실정이다. 특히 안방준이 지은 한시 <오륜가>는 경기체가, 시조·가사 등 오륜을 주제로 한 국문시가 작품과의 관련 양상을 고려할 때 시가문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운섭⁹⁾의 논의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는 오륜시가의 전개 양상을 살피는 과정 중에 한시 <오륜가> 8수 중 처음과 마지막 작품만을 인용하면서 오륜의 덕목을 준수함으로써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시의(詩意)에만 주목했고, 8수로 구성된 작품 전반의 양상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시가문학사에서 ‘오륜가’는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긴 시기 동안 창작되었던 작품군이라 할 수 있는데, 15세기에는

5) 황의동, 『은봉 안방준의 학문연원과 학풍』, 『한국사상과 문화』 제21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427~454면.

6) 최영성, 『안방준의 의리사상과 정신사적 의의 - “도학절의(道學節義) 불시양기(不是兩岐)”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34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4, 223~252면.

7) 박미향, 『은봉 안방준의 절의사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1~39면; 박미향, 『은봉 안방준의 절의사상』, 『역사학연구』 제38집, 호남사학회, 2010, 187~218면.

8) 정재훈, 『안방준의 생애와 사상』, 『조선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2010 ‘옛 기록으로 본 호남명가의 학문과 삶-선비 안방준 도를 묻고 의를 행하다』, 조선대 박물관, 2010, 84~91면.

9) 하운섭, 『조선조 ‘오륜’ 담론의 계보학적 탐색과 오륜시가의 역사적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200면.

경기체가, 16~17세기에는 시조, 17~19세기에는 가사 장르가 주요 양식적 기제로 등장하였다.¹⁰⁾ 그런데 안방준은 16, 17세기를 살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조’나 ‘가사’가 아닌 ‘한시’ 양식으로 ‘오륜가’를 창작하는 특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어 이 작품의 창작 동기나 목적을 비롯하여 교화 대상, 전언(傳言)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집 『은봉전서(隱峯全書)』를 비롯한 관련 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안방준의 도학자적 삶과 학문적 지향을 확인하고, 이를 한시 <오륜가> 창작과 연관지어 오륜 형상과 의미에 대해 고구(考究)하고자 한다. 나아가 안방준이 우리말 노래인 ‘시조[歌]’가 아니라 ‘한시’ 양식을 선택하여 ‘오륜’의 이념을 형상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문학적 효용을 시조와의 비교를 통해 밝혀 그의 한시가 오륜시가사에서 차지하는 문학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한시 <오륜가> 창작배경으로서 독행(篤行)

조선시대 사림(士林)은 재도지기(載道之器)의 관점에서 성리학 경전을 토대로 한 도학적 깨달음과 인간 심성의 바른 도리를 문학 작품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호남사림 안방준 역시 이러한 사림문학의 자장(磁場) 속에서 문학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문학 세계를 적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방준은 출사(出仕)보다는 학문을 연마하고 심성을 수양하는 데 진력했던 도학자였다. 어려서 박종정 문하에서 수학할 때부터 속세에 나아가 부귀공명을 누리기보다는 산수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을 지향했는데, 그는 자연 속에서 승경과 풍류를 즐기면서도 절의를 지키기 위해 굶어죽었던 백이숙제(伯夷叔齊)와 평생 환로에 나아가지 않고 숨어 살았던 진단(陳搏)의 삶을 동경하였다.¹¹⁾ 성혼의 문인이 된 이후에는 스승을 본보기로 삼아 학자로서의 자세를

10) 하윤섭, 『선조 <오륜가>의 고전적 원천과 그 의미』, 『어문논집』 제60집, 민족어문학회, 2009, 94면 참조.

11) 『은봉전서』 권1, <난계장석언지(蘭溪丈席言志)>. “世人本無志 皆好富與貴 我心不在此 欲隱深山裏 端居正衣襟 玄默獨向壁 濁酒兩三杯 彈琴一二曲 流覽左氏傳 浪讀陶杜詩 君不見伯夷叔齊子登彼 西山採其薇 又不見宋時處士陳搏子 隱居華山書掩扉 平生抱此何日遂所欲 遂與

확립할 수 있었는데, 성혼은 안방준에게 ‘구방심(求放心)’ 세 글자를 손수 써서 주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도록 했으며, 주자(朱子)의 편지 중에서 학문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가려뽑은 『위학지방(爲學之方)』을 주며 학문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 이를 통해 안방준은 환로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을 연마하면서 도를 체인(體認)하고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데 더욱 힘쓰게 되었다.

안방준의 도학자적 면모에 대해서는 그의 문인이었던 서봉령(徐鳳翎)이 작성한 <유사(遺事)>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서봉령 역시 환로에 나아가지 않고 스승 안방준이 임종할 때까지 그의 문하를 떠나지 않은 채 후학 양성에 전념했던 인물로, 스승의 학문과 행의(行義)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 <매학선생존문록(梅壑先生尊聞錄)>¹²⁾과 <유사>를 작성한 바 있다.

선생은 일찍이 말하기를, “독서하고 강학하는 것은 옛사람이 남겨놓은 말과 행동(前言往行)을 정확히 알아서 그 덕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 선비된 자가 학문을 하고자 한다면 『소학』 한 책이면 족하고, 치평(治平)의 대업을 구하려 한다면 『대학』 한 책이면 족하다. 오늘의 학자는 죽도록 강학하여 만 권의 책을 독과하지만 하루도 몸소 실행하지 않고 한 글자도 가슴에 새기지 않으니, 이는 아침 내 밥 먹는 얘기만 하고 하나도 배부름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글을 읽은들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대저 사람의 자식된 자가 ‘효(孝)’자를 배우면 반드시 어버이에게 효도를 실행해 본 뒤에야 비로소 ‘효’자를 배운 사람이라 부를 만하고, 사람의 신하된 자가 ‘충(忠)’자를 알면 반드시 임금에게 충성을 실행해본 뒤에야 비로소 ‘충’자를 아는 사람이라 부를 만하다. 진실로 충과 효를 실행함이 없다면 비록 ‘충효’ 두 글자를 수만 번 외우더라도, 애초에 ‘충효’ 두 글자를 모르는 것과 무엇이 조금이라도 다르겠는가? 이는 양(梁)나라 원제(元帝)처럼 만 권의 책을 독과해도 오히려 오늘날 이 꼴이 된 것과 같은 격이니, 어찌 가소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때문에 정이(程頤)·정호(程顥), 장재(張載), 주희(朱熹)와 같은 여러 선생이 도학을 강론하여 밝힌 후로부터 독서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세도(世道)가 날로 무너지고 인심(人心)은 날로 찌드니, 과연 독서의 힘이 있다고 하겠는

同志友 今夕相論確 脫巾枕寒石 漱齒清流湍 歌於斯詠於斯 逍遙於茲山之間”

12) 서봉령은 스승인 안방준에게서 들은 여러 가지의 사실을 기록하여 <매학선생존문록(梅壑先生尊聞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을 편찬했는데, 여기에 수록된 <은봉선생생품지이(隱峯先生生粟之異)>에는 스승이었던 안방준의 품성과 삶의 행적이 연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 이를 두고 상채(上蔡)는 ‘말만 잘하는 것은 참으로 앵무새와 같다’고 하였으니, 비록 생황이 울리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꾸미지만, 어찌 금수의 경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도 유학자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그 평생의 공부를 살펴보면 끝내 언어와 문자 사이에서 맴돌 뿐이다. 성문(聖門)의 다섯 조목 중에서 널리 배우고[博學], 자세히 묻고[審問], 신중히 생각하고[慎思], 밝게 분별하는[明辯] 공부는 간혹 있었지만, 독실한 행동[篤行] 한 가지 일은 없는 듯 하니, 어찌 후학들이 경계하여 거울로 삼아야 할 바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 선생의 평생 강학은 다만 그 대의(大義)가 강상(綱常)과 윤기(倫紀)에 관계되는가를 살펴보았을 뿐, 훈고나 사장의 학문은 하지 않았다.¹³⁾

위 인용문은 서봉령이 스승인 안방준의 실천적 학문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안방준은 독서와 강학은 옛사람이 남겨놓은 말과 행동을 정확히 알아서 그 덕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지금의 학자들은 죽도록 강학하여 만 권의 책을 독파하지만 단 하루도 직접 실행하지 않고 한 글자도 가슴에 새기지 않는다고 탄식하였다. 자식은 반드시 그 어버이에게 효도를 실천해 본 뒤에 비로소 ‘효’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신하는 반드시 임금에게 충성을 해 본 뒤에야 비로소 ‘충’자의 의미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니, 진실로 충과 효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비록 ‘충효’ 두 글자를 수만 번 외우더라도 두 글자의 의미를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원제의 사례를 들어 책만 읽는 것은 현실적 삶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원제는 무제(武帝)의 일곱째 아들 소역(蕭繹)으로, 그는 후경(侯景)의 난을 평정하고 즉위했지만 위나라에 패해 살해된 인물이다. 그는 패망의 순간 수도인 형주성(荊州城)을 겹겹이 둘러싼

13) 번역은 『은봉전서』 국역본의 것을 일부 수정하였다. 『은봉전서』 부록하, 서봉령, <유사>. “先生嘗以爲讀書講學 此不過多識前言往行 以蓄其德矣 爲士者欲爲學問 則小學一書足矣 欲求治平之大業 則大學一書足矣 今之學者 終身講學 讀破萬卷 而無一日之躬行 無一字之服膺 是猶終朝說食 不得一飽者也 然則讀書有何所益 夫爲人子而學得孝字 則須服行孝親之實 然後方可謂學得孝字人矣 爲人臣而識得忠字 則須服行忠君之實 然後方可謂識得忠字人矣 苟無忠孝之行 雖忠孝二字萬萬遍誦 與初不識有忠孝二字者 有何小異 此梁元帝讀書萬卷 猶有今日者 豈非可笑乎 是以自伊洛關閩諸先生講明道學之後 讀書之人 不爲不多 而世道日下,人心日漓, 是果有讀書之力乎 此上蔡所謂能言真如鸚鵡者也, 雖巧言如簧, 豈離禽獸之歸乎 惟我箕邦 儒者亦不爲不多 而其考平生用力 終不離乎言語文字之間 聖門五科 其博學 審問 慎思 明辯 則或有之 篤行一事則闕如也 豈非後學之不可警惕而鑑戒者也 是以我先生平生講學 只觀其大義有關於綱常倫紀者 而不爲訓詁詞章之學矣”

적국의 군대를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촌각에 달려있음을 느끼고 사인(舍人) 고선보(高善寶)에게 서고의 장서 14만 권을 불사르게 하였다. 평생 책을 읽으며 시문 짓는 것을 즐겼던, 그는 불사른 책더미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바라보며, 만 권이나 되는 책을 읽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히려 오늘의 이런 패망뿐이라고 탄식하며 절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안방준은 정호·정이, 장재, 주희와 같은 여러 선생께서 도학을 강론한 후로부터 책을 읽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세도는 점점 무너지고 인심은 날로 찌들고 있으니 이는 독서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실상에 대해 사양좌(謝良佐)가 당시의 학자들을 평했던 표현인 ‘말만 잘 하는 것은 앵무새와 같다¹⁴⁾’는 구절을 가져와 생황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낸 말을 통해서는 금수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유학자가 적지 않은데, 그들의 평생 공부는 언어와 문자 사이에서만 맴돌 뿐이라고 개탄하였다. 결론적으로 유학의 다섯 가지 학문하는 방법 중에서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변별하는 공부는 간혹 있었지만, 독실하게 행동하는 것[篤行]은 없는 듯하기 때문에 후학들은 이를 경계하여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독행’은 원래 『중용』 제20장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하여야 한다(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에서 언급된 학문 수양의 방법 중 하나인데, 안방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리학 경전을 읽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체득한 깨달음을 몸소 실천으로 옮기는 ‘독행’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행’의 한 방편으로 세도가 무너지고 인심이 더럽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방준은 한시 <오륜가>를 창작¹⁵⁾하여 교화를 도모했던 것으로 보인다.

14) 『심경부주(心經附註)』 권4. “上蔡謝氏曰 透得名利關 方是小歇處 今之士大夫 何足道 能言眞如鸚鵡也”

15) 김구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우주영허첩(宇宙盈虛帖)』(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내용은 안방준의 한시 <오륜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구가 안방준보다 앞선 시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한시 <오륜가>가 안방준이 지은 작품이 아니라 김구가 지은 작품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주영허첩』에는 ‘김구가 썼다[書]’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안방준과 관련된 여러 기록에는 안방준이 ‘지었다[作]’는 점이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시 <오륜가>는 안방준이 창작한 작품으로 판단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문강공은봉안선생신도비(文康公隱峯安先生神道碑)>¹⁶⁾에는 이와 관련된, 한시 <오륜가> 창작 동기가 언급되어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금의 전례(典禮)를 고증하였는데 사계 선생이 그 정밀하고 해박함을 인정하였다. 맹자, 공자, 주돈이, 정호·정이의 글에 있어서도 깊이 사색하지 않음이 없었다. 항상 '독행' 한가지를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대체로 선비가 글을 읽고 학문을 강론하는 것은 그 덕을 쌓자는 의도인데 지금 학자들은 평생을 바쳐 학문을 강론하고 만 권의 글을 다 읽어도 하루도 몸소 행함이 없으며 한 글자도 가슴에 새겨두는 일이 없으니, 이는 마치 아침 내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일찍이 오륜시 한 편을 지어 스스로 조심하고 후생에게 훈계를 전하였으니 선생의 식견과 지취를 여기서 알 수 있다. 도리를 훤히 꿰뚫어 의심한 것이 없었으나 도를 안다고 자처한 적이 없고 항상 부족한 사람처럼 하였다.(밑줄 필자)¹⁷⁾

송시열은 안방준이 맹자, 공자, 주돈이, 정호·정�와 같은 성현의 저서를 두루 섭렵하며 그 뜻을 깊이 성찰했고, 강학하는 과정에서 항상 '독행'을 강조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난 뒤, 그가 '오륜시' 한 편을 지어서 '스스로 조심하고 후생에게 훈계를 전하고자[自警而垂戒]' 했다는 창작 동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안방준이 세상 사람들이 부형(父兄)과 사우(師友)에 대해 아름답게 말을 꾸미고 과장되게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을 비판하면서 일상적 대화에서도 자제와 문생들을 경계하려는 뜻을 드러냈다¹⁸⁾는, 삶의 태

16) 송시열이 편찬한 <문강공은봉안선생신도비(文康公隱峯安先生神道碑)>는 현존하는 『송자대전(宋子大全)』과 『송서함유(宋書拾遺)』에는 누락되어있다. 그래서 위작 시비가 있어 왔는데, 1952년 『송서습유』를 중간하면서 비로소 '可徵無疑'라는 결론을 얻어 수록하기에 이르렀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93년 영인 간행한 문집총간 제116권 『송자대전(IX)』에는 실려 있지 않고, 보경문화사에서 1985년 펴낸 영인본 『송자대전』 제7권(560~565면)에는 실려 있다. 또 민족문화추진회 총간 제81권 『은봉전서(II)』에도 이 글은 실려 있지 않다. 최영성, 앞의 논문, 225면 참조.

17) 송시열, <문강공은봉안선생신도비>. "於古今典禮亦有考證 而沙溪先生許其精博 至於鄒魯濂洛等書 無不覃思 實踐而常行 篤行一事 勉勵於人曰 凡士之讀書講學 以畜其德之義 而今之學者 終身講學讀罷萬卷 而無一日躬行 無一字服膺 是猶終朝說食不得一飽者也 嘗作五倫詩一篇 以自警而垂戒 先生識趣此可見矣 於道理洞然無疑 然未嘗以知道自處 常若不足者"

18) 『은봉전서』 부록하, 서봉령, <유사>. "世人於其父兄師友 多爲溢美過實之言 使死者有知 獨

도와도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안방준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시 <오류가>를 창작했던 것일까?

<오류가>의 협주를 보면, 안방준은 김구(金絨, 1488~1534)의 글씨를 좋아했는데, ‘만년’에 김구가 베껴 쓴 『천자문』을 얻어 보고 절구 형식의 <오류가> 8수를 짓고 그 글씨를 본떠서 간행하게 했다¹⁹⁾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오류가>의 창작시기는 그의 ‘만년기’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만년’은 그가 은봉정사를 짓고 그곳에서 학문 활동에 전념했던 74세 이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안방준은 서울로 올라가 낙산 매계동에서 지낼 때에도 강학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현실의 문제와 질곡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학문 활동을 한 것은 은봉정사에 거처하고 있던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모옥(茅屋)을 짓고, 정몽주(鄭夢周)와 조헌(趙憲)의 충효와 절의를 경모하는 뜻을 담아 그들의 호인 ‘포은(圃隱)’과 ‘중봉(重峯)’에서 한 글자씩을 취합하여 ‘은봉정사’라고 당호를 붙였다. 따라서 ‘은봉’은 자신도 두 진유(眞儒)와 같이 현실적 이해나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여 인간 본성의 의리를 실천적 삶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지취가 담겨 있는 표현이자, 그가 도학자로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함의하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곳에서 보성은 물론 화순과 남평 등지에서 찾아온 서봉령, 이위(李穡), 양주남(梁柱南) 등 많은 문인들을 양성했다.

또한 서봉령이 지은 <유사>에서도 <오류가> 창작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협주와 대동소이하다. 안방준은 충신(忠臣)과 현인(賢人)을 지성으로 사모했는데, 특히 기묘명현(己卯名賢)이었던 김구의 문장과 글씨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방준이 서울에 살았을 때 김구의 과거 시험지를 여염집에서 얻어 애독하면서 간직했다가, 나중에 그 자손에게 주어 두씨(杜氏) 집안의 보배, 즉 수(隋)나라 두정장(杜正藏)이 지은 『두가신서(杜家新書)』처럼 귀중하게 소장하게 했고, 또 죽수(竹樹)에 있는 어떤 선비의 집에서 김구의 『천자문』 필적을 얻어 160자를 본떠 오류시 한 편을 짓고 이를 새겨서 세상에 유포하였다.²⁰⁾

不愧於心乎 尋常言語間說不置 蓋戒其子弟門生之意也”

19) 『은봉전서』 권1. <오류가>. “先生好玩金自菴練字畫 晚年得見自菴所寫千字文綱 作絕句八首 使之模出刊行”

20) 『은봉전서』 부록하, 서봉령, <유사>. “先生景慕忠賢 出於至誠 雖書尺文字之流落者 莫不收

이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안방준은 그가 흠모하던 김구의 『천자문』 필적 중 160자를 본떠 8수로 구성된 오언절구 형태의 한시 ‘오륜가’를 창작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안방준은 왜 이렇게 김구를 흠모했던 것일까? 직접적으로 기록한 바와 같이, 김구의 서체가 위(魏)나라의 중요(鍾繇)와 진(晉)나라의 왕희지(王羲之)를 본받아 필력이 강건하고 또 일가를 이루어 ‘인수체(仁壽體)’라고 불릴 정도²¹⁾로 뛰어났기 때문에 서체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김구가 정치적 격동기였던 중종조(中宗朝) 당시에 절의를 지켰던 기묘명현의 한 사람으로, 그의 처신이 안방준이 견지했던 도학적 지향과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²²⁾ 주지하다시피, 김구는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혁신정치를 도모하면서 32세의 나이에 홍문관 부제학에 올랐지만, 1519년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화를 입게 되어 개령, 남해 등지로 유배되었다가 1533년 해배되어 고향 예산에 돌아가 그 이듬해 죽었다.

또한 한시 <오륜가>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천자문』을 전적(典籍)으로 활용하여 그 중에서 글자를 취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자문』은 본래 아동의 문자 학습 교재로, 천 개의 낱글자를 재구성하여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윤리, 도덕, 산천, 역사, 문물, 인물, 고사, 자연, 수양, 충효 등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에 기반하여 한시 <오륜가>의 시의(詩意)를 구상했다는 것은 아동의 문자 교육 교재에서 글자를 선취하여 윤리 규범 교육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어²³⁾ 비교적 어린 나이의 동몽(童蒙)까지도 교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取而寶藏之 是以重峯先生抗義文字 得於俗儒雜記而登著簡策 又於漢中 得已卯名賢金自菴絳科試名紙於閭閻間 愛而寶玩 後贈其子孫 以爲杜家之寶 又於竹樹儒士家 得自菴千字筆跡 模出其百六十字 作五倫詩一篇 刊行于世”

- 21) 『자암집』 부록에 실려 있는 『기묘명현록(己卯名賢錄)』의 <유찬(流纂)>에는 “公筆力強健蔡鍾王 嘗聞爲華人所稱 絕不書 故罕傳於世.”라고 기록되어 있고, 『기묘명현록』의 김세렴(金世濂)이 지은 ‘자암김선생묘비명 병서(自庵金先生墓碑銘 并序)’에는 “筆法強健 自成一家 世謂之仁壽體 蓋公之居仁壽坊故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 22) 안방준이 기묘사화로 인해 조광조를 비롯한 그의 일파가 축척(逐斥)된 일을 모아 『기묘유적(己卯遺蹟)』을 편찬하면서, 조광조가 집권한 기간의 공과(功過)를 비롯하여 기묘사화와 관련된 각종 사건이나 기묘명현의 사적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던 점도 기묘명현에 대한 그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3) 『천자문』의 글자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시키고 있는지, 시적 구조나 형상화 방식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결국 안방준이 <오륜가>를 창작한 것은, 자기 자신을 비롯한 후학들에게 학문적 지표인 ‘독행’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 오륜의 이념을 ‘한시’ 양식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것의 실천을 독려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그가 경전 『대학』을 깊게 공부하여 장구(章句) 외에 소주(小注)까지도 모두 구결(口訣)을 달았다거나 조목조목 도(圖)를 작성하여 여러 선철들과 강론과 토의를 주고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성리학 경전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III. 한시 <오륜가>에 구현된 오륜 형상과 의미

1. 오륜 항목의 구성과 인물 형상

안방준의 한시 <오륜가>는 총 8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륜의 윤리 규범을 다루고 있는 6수의 작품 외에 서사와 결사 역할을 하는 2수의 시를 부기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수(序首)에서 오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부자유친(父子有親)과 군신유의(君臣有義), 장유유서(長幼有序-사제),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형제), 붕우유신(朋友有信)을 읊고, 마지막에 오륜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내용의 시 1수를 덧붙였다.

먼저 한시 <오륜가>의 서사 역할을 하는 제1수를 살펴보자.

가득 차고 텅 빈 우주 속에서	宇宙盈虛內
사람은 먹고 입으며 살아가네.	人生食與衣
오륜을 다하지 못한다면	五倫如不盡
금수와 똑같이 되리라	禽獸是同歸
	제1수

이 시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오륜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 영허(盈虛)하는 우주 속에서 태어나 음식을 먹고 옷을 입으며 생활하면서 오륜의 윤리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금수와 다를 바 없다고 표명하였다. 맹자(孟子)는, 인간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서 편안

히 거주하면서 인륜의 가르침이 없다면 금수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순(舜)임금은 신하 설(契)을 예교(禮敎)를 담당하는 사도(司徒)로 임명하여 인륜, 즉 오륜을 가르치게 했다고 설명했는데,²⁴⁾ 안방준은 이러한 뜻을 압축하여 오언절구의 한시로 형상화하였다. 이는 『동몽선습(童蒙先習)』 서문의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²⁵⁾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 가운데에서 오직 인간만이 오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親愛)함이 있어야 하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이면서 만약 오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짐승과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서수(序首) 이후에는 오륜의 윤리 규범이 차례로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부자유친과 군신유의의 경우에는 함께 연관지어 그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안방준은 평상시에도 배움에서 귀중한 것은 인륜을 밝히는 일이요, 인륜을 밝히는 데에는 충효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²⁶⁾고 하여 윤리 규범 중에서 특히 충효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가 의식이 작품으로 구현되었다.

부모는 천지(天地)와 같으니	父母如天地
누라 애경(愛敬)의 마음 없으리오.	誰無愛敬心
일찍이 불효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嘗觀不孝者
그 뜻을 끝내 알기 어려웠네.	其意竟難尋
	제2수

임금과 부모가 어찌 다르리오.	君父何嘗異
마땅히 충절 다하는 신하가 되어야 하도다.	當爲盡節臣

24) 『맹자(孟子)』 <등문공장구상(滕文公章句上)>. “后稷教民稼穡 樹藝五穀 五穀熟 而民人育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25) 『동몽선습(童蒙先習)』. “天地之間 萬物之衆 惟人最貴 所貴乎人者 以其有五倫也. 是故 孟子曰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人而不知有五倫 則其違禽獸 不遠矣”

26) 『은봉전서』 부록하, 정염(鄭琰), <제문(祭文)>. “而居常語人曰 所貴乎學者 以其明人倫也 明倫莫先於忠孝”

탕왕(湯王)과 희발(姬發)의 덕을 논하지 말게 無論湯發德
 불쌍히 여겨 치는 것도 인(仁)은 아니라네. 弔伐亦非仁
 제3수

제2수는 부자유친의 윤리를 읊은 작품으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다. 부모는 하늘, 땅과 같은 존재이니 자식이라면 부모에 대한 애경(愛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과거에 보았던 불효자를 사례로 들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뜻을 알 수 없다고 탄식하였다.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곧 ‘효’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효경(孝經)』의 <천자장(天子章)>에서 그 뜻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천자의 효에 대해서 설명한 이 장에서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남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남에게 거만하게 굴지 않으니, 부모에게 사랑과 공경을 다하면 백성에게 은덕과 교화가 더해져서 천하에 모범을 보이게 될 것이니, 이것이 천자의 효²⁷⁾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부자 간 윤리 규범은 군신 간의 관계로 확대된다. 군신유의의 윤리를 읊은 제3수에서는 임금과 부모는 다르지 않다고 전제한 후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게 충절을 다하는 신하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로 윤리를 전언하고 있다. 이 시의 요체는 『천자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부모 섬기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 임금을 섬기니 이것을 엄격함과 공경함이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하며 충성함에는 곧 목숨을 다해야 하니 임금을 섬기는 데 몸을 사양해서는 안된다(資父事君 曰嚴與敬 孝當竭力 忠則盡命)”라는 구절에서 그 뜻을 취하고 있다. 즉,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겨야 하며, 임금을 섬길 때는 말과 행동을 철저히 하고 바르게 하여 공손히 받들어 모시며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은나라 탕왕(湯王)과 주나라 무왕(武王)의 덕을 논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벌(弔伐)도 인(仁)은 아니라는 뜻을 덧붙였다. 이 구절도 『천자문』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죄지는 자를 정벌한 것은, 주나라 무왕과 은나라 탕왕이다(弔民伐罪 周發殷湯)”의 뜻을 시로 형상화한 것으로, 탕왕과 무왕이 가혹한 정치

27) 『효경(孝經)』 권1, <천자장(天子章)>. “愛親者 不敢惡於人 敬親者 不敢慢於人 愛敬盡於事親 而德教加於百姓 刑於四海 蓋天子之孝也”

로 고통받고 학대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주색에 빠져 국사를 돌보지 않았던 하나라 걸왕(桀王)과 은나라 주왕(紂王)을 징벌한 것은 비록 ‘조민벌죄(弔民伐罪)’로 정당한 혁명이기는 하지만, 신하로서 임금을 징벌한 행위 자체만 놓고 볼 때에는 ‘인’이라는 유교 이념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부정적 행실의 인물 전고를 제시하여 각 윤리 규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2수에서는 특정할 수 없는 ‘불효자’를 예시로 들어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는 뜻을 알 수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전언하였고, 제3수에서는 ‘탕왕’과 ‘무왕’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전고를 제시하여 신하로서 임금을 대하는 도리를 권면하고 있다.

계속해서 제4수부터는 장유유서-부부유별-장유유서-붕우유신의 순서로 윤리 규범을 읊고 있는데, 장유유서의 경우 사제지간의 윤리와 형제간의 윤리로 나누어 각각 전언하고 있다. 기실 장유유서는 혈연, 거주, 지식의 공동체로서 질서와 화합을 지향하는 윤리 규범이라 할 수 있는데, 도학자 안방준은 먼저 지식 공동체인 사제지간에 갖추어야 할 윤리에 주목하고 있다.

도에 뜻을 둔다면 누구를 좇아야 하는가?	志道從何得
스승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네.	非師不可成
만일 방몽(逢蒙)의 활 솜씨를 배웠던 것 같다면	如其學蒙射
악명은 영원히 전해지리라.	千載惡流名
	제4수

한 몸이 나뉘어 형제가 되니	一體分兄弟
항상 형은 우애하고 동생은 공경해야 하네.	尋常友與恭
오히려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相猶不相好
세상에 용납받기 어려운 죄를 짓는 것이라네.	於世罪難容
	제6수

제4수는 ‘장유(長幼)’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인식하고 스승에 대한 제자의 도리를 전언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자는 ‘도(道)에 뜻을 두고자 한다면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스승이 아니면 도를 이룰 수

없다고 자답하며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스승을 배반한 방몽(逢蒙)의 고사를 인용하여 가정적 진술 형태로 형상화함으로써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도리를 압축적으로 권계하고 있다. 방몽은 예(羿)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에게서 활 쏘는 법을 배웠는데, 스승에게서 활쏘기 재주를 다 배우고 난 후 천하에서 예만이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스승인 예를 죽였다.²⁸⁾ 안방준은 이러한 방몽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사례를 들어 경계(警戒)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 작품 역시 앞선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물의 고사를 가져와 윤리 규범을 전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6수에서는 형제간의 윤리 규범을 전언하고 있는데, 당위적 명제와 함께 가정적 진술을 통해 규범을 전언하고 있다. 하나의 몸이 나뉘어 형제가 되었으니 형은 동생을 우애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를 제시하고, 서로 미워한다면 세상에서 용납받기 어려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다. 『천자문』에서는 “깊이 생각해주는 형과 아우는 기운이 같고 가지가 연해 있다(孔懷兄弟 同氣連枝)”라고 하여, 형제는 부모의 기운을 똑같이 받아서, 나무에 비유하면 부모는 뿌리와 같고 형제는 한 뿌리에서 난 서로 이어진 가지와 같기 때문에,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형과 동생은 한 부모로부터 똑같은 기운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고, 경쟁의 대상이나 배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안방준이 75세 때인 1647년에 같은 마을에 사는 형제가 밭을 두고 서로 다투며 혈난하다가 그를 찾아와 고한 것에 대해 그는 “얻기 어려운 것은 형제요, 얻기 쉬운 것은 토지인데, 어찌 얻기 쉬운 토지 때문에 얻기 어려운 형제를 잃으려 하는가?”라고 타일러 다시는 다투지 않게 했는데³⁰⁾, 이는 형제간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물질적 재산보다도 혈육이 더욱 소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일화로 이해할 수 있다.

28) 『맹자(孟子)』 「이루장구하(離婁章句下)」, “逢蒙學射於羿 盡羿之道 思天下惟羿爲愈己 於是殺羿”

29) 이철승, 『초기 유가 사상에 나타난 ‘장유유서’관의 현실적 의미』, 『유교문화연구』 제13집,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2009, 14~15면 참조.

30) 『은봉전서』 부록, <연보>, “村人兄弟 爭田相詰 詣門而告 先生諭之曰 難得者兄弟 易得者土地 豈可以易得之土地 失難得之兄弟乎 反覆開諭 言甚剴切 其人兄弟卽感悟泣下 不復爭”

다음으로 부부유별의 윤리 규범을 다룬 작품을 살펴보자.

거문고나 비파처럼 잘 화합해야	好合如琴瑟
집안이 화목하고 백성을 교화할 수 있으리.	宜家化國人
일찍이 옛 부부를 살펴보니	嘗觀古夫婦
서로 손님 대하듯이 공경하였네.	相待敬如賓

제5수

제5수에서는 『시경(詩經)』 소아(小雅) <상채(常棣)>의 시구³¹⁾를 인용하여 부부간의 윤리를 전언하고 있는데, 부부 모두에게 거문고나 비파와 같이 조화롭게 화합해야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如鼓瑟琴], 나아가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다는 뜻을 당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극결(郤缺)과 그 아내의 고사를 인용(引喻)하여 부부 간에 서로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공경하라는 실천 윤리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진(晉)나라 기(冀) 땅의 극결이 밭에서 김을 매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들밥을 가지고 와서 먹이는데, 이들은 서로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공경하였다[敬相待如賓]고 한다. 앞서 인용한 작품들이 부정적 행실을 했던 인물들을 가져와 윤리 규범을 전달했던 것과 달리, 이 시에서는 긍정적 행실을 했던 극결과 그의 아내 고사를 인용하여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별적이다. 『천자문』에서는 “윗사람이 온화하면 아랫사람이 공손하고, 남편이 이끌면 아내는 따른다(上和下睦 夫唱婦隨)”라고 하여, 윗사람이 온화한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면 아랫사람은 자연스럽게 윗사람을 공손하게 따르며, 남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 아내는 잘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곧 부부 사이의 도리라고 하여, 쌍무적 실천 윤리를 제시한 한시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붕우유신의 윤리 규범을 형상화한 다음 작품에서는 벼슬 성(姓)이 다른 형제로 인식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1) 『시경(詩經)』 「소아(小雅)」 <상채(常棣)>. “妻子好合 如鼓瑟琴”

벗 사이는 형제간과 같긴 하지만	友也如兄弟
서로 경계(警戒)하는 도 또한 있다네.	箴規道亦存
분분하게 나대는 경박한 자와	紛紛輕薄子
어찌 감히 더불어 말하라.	豈敢與之言
	제7수

벗 사이는 형제지간과 같지만 서로 경계(警戒)하여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는 방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어서 분분하게 나대는 경박한 자들과는 함께 벗의 도리를 논할 수 없다고 탄식하였다. 『친자문』에서는 “벗과 교제할 때에는 분수를 지키고,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경계하고 바로잡아준다(交友投分 切磨箴規)”라고 했다. 이것은 벗과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낼 때에는[交友] 벗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한도를 지키고[投分], 학문과 덕행, 기예 등을 서로 경쟁하여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切磨], 친구가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를 하고[箴], 만일 친구가 잘못된 일을 하면 바로잡아줘야 한다[規]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방준은 특히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는 ‘잠규(箴規)’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분분하게 나대는 ‘경박한 자’들과는 벗의 도리를 논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시상이 종결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시어가 쓰인 것으로 보아 두보(杜甫)의 <빈교행(貧交行)>³²⁾에 구현된 ‘신의’라는 주지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보는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하는 천박한 세태를 ‘손을 뒤집으면 구름 일고 손을 얹으면 비 오니, 분분히 경박한 자들 어찌 굳이 나무라겠는가(翻手作雲覆手雨 紛紛輕薄何須數)’라고 한탄하며 관포지교(管鮑之交)를 교훈으로 삼아 벗 사이의 신의를 지킬 것을 훈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수를 통해 오륜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하면서 작품을 마무리짓고 있다. 오륜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니 이를 꼭 유념할 것을 당부하면서 고인(古人)의 말씀인 ‘작성근기(作聖根基)’를 인용하여 성인이 되는 기본이 바로 오륜임을 강조하였다.³³⁾

32) 두보(杜甫), <빈교행(貧交行)>. “翻手作雲覆手雨 紛紛輕薄何須數 君不見管鮑貧時交 此道今人棄如土”

33) 안방준, <오륜가> 제8수. “이 밖에 다른 도가 없으니 정녕 생각을 이에 두어라. 일찍이 고인의 말씀을 듣건대 성인이 되는 데에는 이것이 기초라 하더라(此外無他道 丁寧念在茲 嘗聞

2. 시조 <오륵가>와의 비교를 통해 본 한시 <오륵가>의 의의

시가사에 있어서 ‘오륵가’는 ‘오륵’의 윤리 규범과 ‘가(歌)’라는 문학의 양식을 결합하여 교훈을 전언하기 위한 목적에서 산출된 시가 양식으로서, 15세기부터 한시, 경기체가, 시조, 가사 등의 다양한 양식으로 창작·향유되었다. 1432년 예조에서 오륵의 진작과 교화를 위해 경기체가 형식으로 관찬하여 보급했던 <오륵가> 이래로, 한시, 시조, 가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서 창작되었는데, 15세기에는 경기체가, 16~17세기에는 시조, 17~19세기에는 가사 장르로 주요 양식이 변모하였다. 오륵은 『소학』이 동몽수신서(童蒙修身書)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부터 인간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실천 윤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교화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성리학 경전을 전적으로 삼아 그 내용과 표현을 활용하여 ‘오륵’의 이념을 구현하면서도 작가의식이나 창작의도, 교화대상 등에 따라 문학양식, 작품 구성 또는 표현의 측면에서 변별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⁴⁾ 이러한 맥락에서 안방준 역시 나름의 작가의식을 견지하고 오륵의 이념을 전언하기 위한 문학 양식으로 ‘한시’를 선택하여, 실천 윤리로서 ‘오륵’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형상화 방식을 구상함으로써 교화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시조 ‘오륵가’의 창작목적 및 창작양상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륵 항목의 구성과 형상화 방식의 측면에서 시조 <오륵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시 <오륵가>에 구현된 오륵 형상의 변별적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시조 <오륵가>의 오륵 항목은 작가의 신분과 처지에 따라 두 가지 양상으로 변별되고 있다. 즉, 지방행정관료인 주세붕의 시조 <오륵가>는 부자, 주노, 부부, 형제, 장유 간에 지켜야 할 윤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재지사족인 박선장, 김상용, 박인로의 <오륵가>는 부자, 군신, 부부, 형제, 봉우 간에 지켜야 할 윤리로 이루어져 있다. 재지사족의 시조에서 ‘주노’가 ‘군신’으로, ‘장유’가 ‘봉우’로 바뀐 것은 목민

古人語 作聖是根基”

34) 고영화, 『장르의 매체적 성격과 장르 선택 원리에 대하여 - 오륵가 계열 경기체가와 시조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9~26면 참조.

관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주노’라면, 국가와 재지사족의 관계는 곧 ‘군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수직적인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장유’가 지방행정관료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가라는 틀 속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상하 위계질서 확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면, 재지사족의 시조에서는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향촌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들의 처지를 반영하여 수평적인 상호관계인 ‘봉우’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재지사족의 시조는 국가보다는 주로 자신의 가문이나 향촌의 사족 집단이라는 작은 틀 속에서 자신들의 유대 강화와 집단 결속에 관심을 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³⁵⁾

그런데 안방준의 한시 <오륜가>에 구현된 오륜의 항목은 부자, 군신, 장유(사제), 부부, 장유(형제), 봉우 간의 윤리이다. 그가 호남사람으로 재지사족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지사족의 시조와 비교해 보면, ‘형제’가 ‘장유’로 달라지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는데, 표면적으로 지방행정관료인 주세붕 시조의 오륜 항목과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 상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지어진 주세붕의 시조와는 차이가 있다. 안방준은 장유유서 항목을 사제간의 윤리와 형제간의 윤리로 각각 나누어 2수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장유유서를 ‘스승과 제자³⁶⁾’, ‘형과 아우’라는 지식과 혈연 공동체의 측면에서 함양해야 할 중요한 윤리 규범으로 인식한 것으로, 향촌의 사족 집단이나 자신의 가문 내에서 유대 강화나 집단 결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한시 <오륜가>는 재지사족의 시조와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륜 항목을 형상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재지사족의 시조 <오륜가>와 안방준의 한시 <오륜가>를 비교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재지사족의 시조 <오륜가>는 교훈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 면모로 지적되었는데³⁷⁾,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5) 최현재, 『교훈시조의 전통과 박인로의 <오륜가>』,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82~83면 참조.

36) 안방준이 은봉정사에서 강학할 때 이 시가 지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스승의 역할과 제자로서의 도리가 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었다.

37) 최현재, 앞의 논문, 84~86면 참조.

同氣로 셋 몸 되야 혼 몸가치 지너다가
두 아은 어더 가서 도라올 줄 모르느고
날마다 夕陽門外에 한숨 계워 흐노라

- 박인로, <오륜가> 형제유애 제4수

님군을 섬기오더 正훈 길노 引導하야
鞠躬盡瘁하야 죽은 後의 마라스라
가다가 不습곳 흐면 물너간들 엇더리

- 김상용, <오륜가> 제2수

인용한 박인로의 작품은 형제간의 윤리를 다루면서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자신보다 먼저 죽은 두 아우를 그리워하는 심회를 표출하고 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석양 무렵 문밖에서 아우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한숨 짓는 작가의 모습이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김상용의 작품은 임금을 섬기는 신하의 도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지사족 작가가 지니고 있던 출처진퇴관(出處進退觀)이 투영되어 있다. ‘국궁진취’와 ‘물너간들 엇더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을 섬긴다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되 임금과 뜻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는 데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전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화대상인 청자는 작가의 개인적 삶과 의식에 공감하게 됨으로써 교화의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청자들에게 친숙한 대상을 가져와 비유적으로 오륜의 이념이 전언됨으로써 교화 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寸마도 못흐 푸리 봄 이슬 마즌 後에
넙 넙고 즐기 기러 밤나즈로 부러났다
이 恩惠 하罍極히니 가풀 줄을 물너라

- 박선장, <오륜가> 제1수

부자간의 윤리를 노래한 이 시조는, 끝없이 넓고 큰 부모님의 자애(慈愛)를 이슬을 맞고 풀이 자라는 상황에 빗대어 부모님의 은혜가 지극하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종장에서 ‘이 恩惠 하罔極하니 가플 줄을 몰니라’라는 화자의 탄식을 통해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권계하고 있다.³⁸⁾

그런데 시조 <오륜가>의 형상화 방식에 있어서 한시 <오륜가>와 더욱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은 전고(典故)를 활용하여 시의(詩意)를 전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두 姓이 훈터 모다 함피 늘거 죽자흐니
 百年情好야 이에서 더라마는
 그러도 恭敬홀 줄 모르면 雌鳩 아니 인느냐

- 박선장, <오륜가> 제3수

夫婦라 희은 거시 늬으로 되어 이서
 如鼓瑟琴하면 괴 아니 즐거오나
 그러코 恭敬곳 아니면 卽同禽獸호리라

- 김상용, <오륜가> 제3수

인용한 두 시조는 전고를 활용하여 부부간에 서로 공경할 것을 권면한 작품이다. 박선장은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세월만큼 정분이 두터워지기 마련인데, 이것만으로는 부부간의 관계가 완벽해질 수 없다고 인식하고, 종장에서 『시경(詩經)』 주남(周南) <관저(關雎)>에 나오는 ‘저구(雌鳩)’를 인용하여 부부간에 서로 공경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구’는 암수 사이가 매우 다정하면서도 분별이 있는 새이기 때문에 ‘저구 아니 인느냐’라는 작가의 탄식은 곧 저구의 분별, 즉 부부간의 ‘별(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공경’이라는 실천윤리로 연결된다.³⁹⁾ 김상용의 시조도, 부부는 남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로 금슬이 좋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지만 서로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 그 시의는 박선장의 시조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저구’를 통해 ‘부

38) 송재연, 『박선장 가문의 영주 생활과 시가 창작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51집, 한국고전문학회, 2017, 80~81면 참조.

39) 송재연, 위의 논문, 81면 참조.

부간에 공경할 것'을 전언하지 않고, 『시경』 소아 <상체>의 시구 '여고슬금(如鼓瑟琴)'을 인용하여 거문고와 비파와 같이 조화롭게 화합할 것을 전제하고, 부부간에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선언하면서 교훈을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다.

안방준의 <오륜가>의 경우 부부유별의 윤리를 전언하면서, 『시경』의 시구 '여고슬금(如鼓瑟琴)'을 인용하여 부부간에 공경할 것을 전언하는 점은 김상용의 <오륜가>와 유사하지만, 긍정적 인물형을 제시하여 교훈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즉, 부부에게 거문고나 비파와 같이 조화롭게 화합해야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나아가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다는 뜻을 당위적으로 제시한 후 긍정적 인물인 극결과 그 아내의 고사를 인용(引喻)하여 부부 간에 서로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공경하라는 뜻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상화 방식은 비단 부부유별의 윤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안방준의 <오륜가>는 작가의 개인적 체험이나 의식을 투영하여 오륜의 이념을 전언하지 않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재하자(在下者)의 도리에 초점을 맞춰 당위적 명제를 제시한 후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실을 했던 인물의 전고를 사례로 들어 교훈성을 강화하고 있었다.⁴⁰⁾ 이것이 바로 시조 <오륜가>에 나타난 형상화 방식과 변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한시 <오륜가>에 나타난 이러한 특징은 『동몽선습』과 같은 수신서의 내용 구성방식과 유사하다. 『동몽선습』의 '부자유친' 항목⁴¹⁾을 예로 들어 오륜의 이념을 진술하는 방식을 확인해 보면,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늘이 정해준 관계로 전제한 후, 부모의 도리와 자식의 도리, 쌍방 간의 이러한 도리가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야기되는 폐단을 차례로

40) 한시 <오륜가>에 나타난 이러한 양상은 가사 <오륜가>에 나타난 오륜 형상과도 유사하다. 광서정이 지은 <광스부오륜가>의 '부자유친' 항목을 보면, '부자'라는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각각의 위치에 따른 직분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쌍무적 도리를 전언하고 난 뒤 부정적 인물형인 '근세의 몹쓸 인물'을 예로 들어 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양상을 개탄하면서 오륜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41) 『동몽선습』, <부자유친>. “父子 天性之親 生而育之 愛而教之 奉而承之 孝而養之 是故 教之以義方 弗納於邪 柔聲以諫 不使得罪於鄉黨州閭 苟或 父而不子其子 子而不父其父 其何以立於世乎 雖然 天下無不是底父母 父雖不慈 子不可以不孝 昔者 大舜 父頑母嚚 嘗欲殺舜 舜 克諧以孝 烝烝乂不格姦 孝子之道 於斯至矣 孔子曰 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

언급하고,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한 긍정적 인물로서 순임금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결국 안방준은 『친자문』이나 『소학』, 『동몽선습』과 같이 산문으로 상세하게 서술된, 성리학 경전을 대신하여 ‘한시’로 오류 항목의 요체를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천 윤리로서의 당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말로 지어진 시조는 노래로 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교화대상이 확대되고 교화의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학식이나 문학적 소양을 갖춘 청자를 교화대상으로 선택한다면 그들에게 익숙했던 경전의 구성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류의 이념을, 단형의 한시 형식으로 압축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교훈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 동안 전라도 보성에서 은거했던 호남사람 안방준의 도학자적 삶과 학문적 지향을 살피고, 이를 한시 <오류가> 창작과 연관지어 작품에 구현된 오류 형상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시조 <오류가>와의 비교를 통해 오류시거사에 있어서 그의 한시 <오류가>가 가지는 문학적 의의를 규명하였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중기의 도학자 안방준은 출사(出仕)를 선택하기보다는 고향에 은거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심성을 수양하는 데 진력하였다. 특히 그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독서와 강학을 통해 체득한 깨달음을 몸소 실천하는 ‘독행(篤行)’을 중시하였다. 그 결과 그의 학문은 훈고나 사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인 삼강오륜, 윤기(倫紀)에 그 대의(大義)가 놓여 있었다. 이러한 실천 윤리 중심의 도학관을 견지하고 있던 안방준은 세도가 무너지고 인심이 더럽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행’의 한 방편으로 한시 <오류가>를 창작하게 된다. 그는 은봉정사에서 지내며 학문 활동에 전념하고 있던 시기에 평소에 흠모했던 김구의 『친자문』 필적 중 160자를 본떠 총 8수로 구성된 오언절구 형식의 <오류가>를 창작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비롯한 후학들에게 학문적 지표인 ‘독행’을 권면하기 위해 실천 윤

리인 ‘오륜’을 한시 양식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실천을 독려했던 것이다.

안방준의 한시 <오륜가>에 구현된 오륜의 항목은 부자, 군신, 장유(사제), 부부, 장유(형제), 봉우 간의 윤리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장유유서의 경우 사제간의 윤리와 형제간의 윤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장유유서를 ‘스승과 제자’, ‘형과 아우’라는 지식과 혈연 공동체의 측면에서 함양해야 할 중요한 윤리 규범으로 인식한 결과로 향촌의 사족 집단이나 자신의 가문 내에서 유대 강화나 집단 결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한시 <오륜가>는 오륜 항목 구성에 있어서 부자, 군신, 부부, 형제, 봉우로 이루어진, 재지사족의 시조 <오륜가>와 동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형상화 방식에 있어서 한시 <오륜가>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재하자(在下者)의 도리에 초점을 맞춰 당위적 명제를 제시하고, 이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실을 했던 인물의 전고를 사례로 들어 교훈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조 <오륜가>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천자문』이나 『소학』, 『동몽선습』과 같이 산문으로 상세하게 서술된, 성리학 경전을 대신하여 ‘한시’로 오륜의 요체를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천 윤리로서의 당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화대상에게 익숙했던 경전의 구성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륜의 이념을, 단형의 한시 형식으로 압축 제시하여 교훈의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 박광전(朴光前), 『죽천집(竹川集)』.
박종정(朴宗挺), 『난계집(蘭溪集)』/『난계실기(蘭溪實記)』.
안방준(安邦俊), 『은봉전서(隱峯全書)』.
죽산안씨목우회 편, 『(국역) 은봉전서 1』, 안동고 역, 신조사, 2002.
죽산안씨 족보간행위원회 편, 『죽산안씨족보』, 죽산안씨 족보간행위원회, 1995.

2. 단행본

- 안진오, 『호남유학의 탐구』, 이회, 1996.
조선대 박물관 편, 『선비 안방준, 도를 묻고 의를 행하다: 옛기록으로 본 호남 명가의 학문과 삶』, 조선대 박물관, 2010.

3. 논문

- 고영진, 『17세기 전반 호남사림의 학문과 사상-안방준, 고부천, 정인홍을 중심으로』, 우송 조동걸선생 정년기념논문간행위원회, 『한국사학사연구』, 나남출판, 1997, 304~324면.
김대식, 『조선 후기 죽산안씨 문중의 강학과 향촌교화 활동』, 『인문학연구』 제45집,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3, 153~180면.
박미향, 『은봉 안방준의 절의사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송재연, 『박선장 가문의 영주 생활과 시가 창작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51집, 한국고전문학회, 2017, 65~95면.
안동교, 『은봉 안방준의 진유적 삶의 여정』, 『향토문화』 제18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8, 15~42면.
이철승, 『초기 유가 사상에 나타난 ‘장유유서’관의 현실적 의미』, 『유교문화연구』 제13집,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2009, 5~28면.
이해준, 『우산 안방준의 생애와 사상』, 『금호문화』 통권37호, 금호문화재단, 1988년 7월호, 70~77면.
최영성, 『안방준의 의리사상과 정신사적 의의 - “도학절의 불시랑기”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34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4, 223~252면.
최현재, 『교훈시조의 전통과 박인로의 <오륜가>』,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63~100면.
하운섭, 『선초 <오륜가>의 고전적 원천과 그 의미』, 『어문논집』 제60집, 민족어문학

회, 2009, 67~96면.

하운섭, 『선조 ‘오륵’ 담론의 계보학적 탐색과 오륵시가의 역사적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황의동, 『은봉 안방준의 학문연원과 학풍』, 『한국사상과 문화』 제21집, 한국사상문화회, 2003, 427~454면.

A Study on the Figure of Oryun(五倫) in *Oryunga*(五倫歌) written by An Bang-jun(安邦俊) and its Meaning

Song, Jae-y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life and study of An Bang-jun(安邦俊) who lived during the period of historic upheaval in the late 16th and early 17th centuries as Honamsalim(湖南士林), and to examine the figure of Oryun(五倫) and its meanings embodied in *Oryunga*(五倫歌), by relating this to the creation of Chinese poem. Furthermore, this study will reveal the significance of his *Oryunga*(五倫歌) in terms of the history of *Oryunsiga*(五倫詩歌).

An Bang-jun(安邦俊) was a moralist who worked hard to stay home, improve his studies and train his mind, rather than go into government service. In particular, he emphasized Dokhaeng(篤行) which practice his realization through reading and lecturing in his study. Thus, he who was maintaining the moral center of practice, created *Oryunga*(五倫歌) to solve the problem about the losing of the principle of the world and the human nature being soiled. This encouraged him and his students to practice in order to teach later students academic indicators by shaping the ethics of practice, *Oryun*(五倫), in Chinese poem.

Oryunga(五倫歌) consisted of Oryun(五倫) one after another. Especially in the case of Elders first, it was divided into the ethics between teacher and student, and ethics between older brother and younger brother. This was the result of recognizing the ethics of Elders first as an important ethical norm that should be nurtured in terms of knowledge and blood-related communities,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strengthen ties or unite groups within local scholar groups or their own families. Therefore, Chinese poem *Oryunga*(五倫歌) has a similar aspect to Sijo(時調) in its composition. In addition, unlike the formative style embodied in the Sijo(時調), the chinese poem presented a justifiable proposition with a focus on the principle that the subordinate should have in human relations, and was enhancing the effect of delivering lessons by citing the biography of the person who performed positive or negative acts. This was similar

to the writing style of a book like Dongmongseonseup(童蒙先習), chinese poem *Oryunga*(五倫歌)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strengthened its legitimacy as a practical ethics by presenting the key elements of each item of *Oryun*(五倫) in a compressed manner, replacing the scriptures described in prose.

keywords: An Bang-jun(安邦俊), Honam-Salim(湖南士林), Dokhaeng(篤行), Chinese poem, *Oryunga*(五倫歌), *Oryun*(五倫), practical ethics

접수일자: 2019. 3. 31. 심사기간: 2019. 4. 1.~2019. 5. 10. 게재결정: 2019. 5. 10.
--